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 찬양의 가을걷이** : 오늘 오후 1:30에 찬양의 가을걷이가 열립니다.
- 가재울녹색교회 설립예배** : 가재울녹색교회 (담임 양재성 목사) 설립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환경세미나** : 환경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1:30, <에너지 이야기>를 주제로 열립니다. 세미나를 위해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샷을 환경부 담당자(010-5489-3255)에게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보고** : 당회를 위해 각 선교회장, 부서장, 기관장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속회 신청** : 내년부터 새롭게 속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기 원하는 이와 입교하기 원하는 이는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 12월 5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 : 12월 12일(토) 오후 2시
- 성탄장식** : 대림절을 준비하며 이번 주 토요일(21일)에 장식을 합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오후2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 | | | |
|-------|---|-------|---------|
| 1부 예배 | 렘 33:14-16 / 시 25:1-10 살전 3:9-13 / 눅 21:225-36 | 2부 예배 | 합 2:1-4 |
|-------|---|-------|---------|

오늘 식당 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수정 유금주 신미라 최영혜 김기성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김혜정 류정옥 송인선 박범희 허호범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51-5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성서학당 | 13:30 | 대예배실 |
| 중고등부 | 09:30 | 교육관 | 수요집회 | 11:0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수요성경연구 | 19:30 | 교육관 |
| 토요성경읽기 | 10:30 | 세미나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왕국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말미
 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높은 담과 장벽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서로를 귀히 여기는 평화세상을 속히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친 세
 상을 살아가며 덩달아 거칠고 무더진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고쳐주
 십시오. 욕망의 북소리를 따라 살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맑은 가락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 교 독 문 87. 계시록 21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하현철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299.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 ♣ 성경봉독 1.삼하23:1-7 계1:4b-8 요18:33-37 최다미 선생
 11. 출 15:19-21 김승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대
- 말 씬 1. 빌라도 앞에 서다 신진식전도사
 11. 미리암의 노래 김기석 목 사
-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 | | | | | | | | | |
|-----|-----|-----|-----|-----|-----|-----|-----|-----|-----|
| 강금분 | 권미숙 | 김성우 | 박유경 | 김용진 | 박효선 | 김용태 | 박정숙 | 김윤수 | 박상호 |
| 김종문 | 지명주 | 김중현 | 성귀옥 | 김혜진 | 김훈동 | 김유경 | 문금석 | 박규석 | 박경선 |
| 박영희 | 박옥순 | 박준희 | 이기분 | 박창운 | 허정운 | 유백성 | 변재민 | 이소혜 | 송인선 |
| 심상숙 | 유상진 | 유은정 | 윤미경 | 윤수진 | 윤정덕 | 구성실 | 은종인 | 이봉옥 | 이순용 |
| 김신실 | 이인웅 | 오송경 | 이준림 | 이현순 | 임명희 | 정원석 | 김현영 | 정현선 | 유병선 |
| 조경자 | 최 숙 | 최윤희 | 최지현 | 최 현 | 하현철 | 최성애 | 한상익 | 정영선 | 허신열 |
| 허호범 | 박성실 | 홍순구 | 안홍숙 | | | | | | |

감사헌금

| | | | | | | | | | |
|-----|-----|-----|-----|-----|------|-----|-----|-----|-----|
| 강금분 | 김승욱 | 진혜정 | 김재흥 | 최희영 | 김정훈 | 이진영 | 박후진 | 방문성 | 이부곤 |
| 이원재 | 염보미 | 이은혜 | 전은택 | 조병무 | 조성일 | 이선영 | 조성재 | 조혜운 | 주은경 |
| 주혜연 | 최명자 | 최미자 | 허성호 | 진은혜 | 무명14 | | | |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무명4

생일감사헌금

임승동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음 장소 |
|------|-------|-----|-------|-------|
| 예루살렘 | 백혜숙 | 박성희 | 오송정 | 백혜숙 |
| 안디옥 | 신진식 | 최경미 | 정복순 | 최경미 |
| 가나안 | 장영숙 | 신영신 | 장미경 | 박숙미 |
| 베다니 | 박홍재 | 박홍재 | 김윤수 | 김경수 |
| 시온 | 권미숙 | 박미영 | 배삼순 | 박효선 |
| 에베소 | 김금순 | 김금순 | 신영희 | 김금순 |
| 빌립보 | 곽권희 | 윤수진 | 윤수진 | 윤미경 |
| 가버나움 | 안홍숙 | 오현정 | 김명희 | 야외 |
| 나사렛 | 김경혜 | 홍춘숙 | 김양진 | 안현숙 |
| 다메섹 | 박혜경 | 박혜경 | 박혜경 | 이기분 |
| 두란노1 | 김재흥 | 오자영 | | |
| 두란노2 | 김재흥 | 송형운 | | |
| 두란노3 | 이범석 | 이진영 | | |
| 두란노4 | 이범석 | 곽상준 | | |
| 두란노5 | 신진식 | 이오복 | | |

제로섬 게임

혼자 김장을 하다가
오른손이 권 칼에 왼손 손가락이 깊게 베였다
혼자 아닌 혼자라는 생각에
평정을 벗어난 마음 한 끝이 날을 세웠던 모양이다

왼손이 믿었던 오른손
둘이면서 하나라 믿었던 마음을 베였다
상처란,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길 때 생긴다

그러나 내 한 몸도 서로 어긋날 때가 있어
내가 나를 베고, 또 봉합하며
둘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었다가 한다

오늘은 다친 왼손 때문에
부엌을 모르던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하숙생 같던 딸아이가 내 머리를 감겨주기도 한다

내가 나를 베 값, 이만하면 됐다

- 문 속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
|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 |
|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 |
|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
|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 |

| | | | |
|------------------------------------|--|-------|------|
| 찬양 |449. 예수 따라가며 | | 다 함께 |
|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 다 함께 |
| ♣ 봉헌기도 |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 다 함께 |
| ♣ 보냄의 말씀 | | | 다 함께 |
|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릇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속히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십시오. | | |
| 다 함께: | 아멘. 지난날 우리가 의지했던 그릇된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 |
| ♣ 찬양 | 635. 주의 기도 | | 다 함께 |
| ♣ 축복 | | | 담임목사 |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일 집회 |
|----------|---------------------|
| 찬양의 가을걷이 |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
| | 저녁성경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재흥 목사 | 공동기도 | 김윤하 선생 |
| | 김기석 목사 | 김근종 권사 | 정원석 집사 |

| 11월 | 영접위원 | 김정민 권혁순 정현모 이해령 유경순 박경원 |
|-----|------|-------------------------|
| | 헌금위원 | 한완식 김경혜 |

소공인小工人

영국에서 논문 쓰려고 10년 만에 잠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각계각층 사람을 150명 정도 만났는데, 1970년대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아직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말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살까? 유럽에서는 기술자들이 대접받고 사는 데, 거기서 명품도 나오고 장인도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사람들은 여전히 숨어 살고, 공장 구석에 꼭 박혀서 일만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주 같은 사람들인데, 다만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뿐인데, 이 진주를 잘 켜면 새로운 보석으로 탄생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세상에 나온 게 <소공인> 이 책입니다.

창신동 같은 데는 아직도 미싱 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량생산 시스템이 베트남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나가서, 예전에 봉제로 먹고살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수십 년 씩 기술자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도시에서는 몇 사람씩 소공장에 모여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대한 재조명이 필요해요. 이 분들은 자본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기술의 보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공순이, 공돌이로 대우받았지만, 다른 나라에선 20년 이상이면 마이스터, 30년 이상이면 명장 대접을 받아요. 우리나라에는 40년 이상 기술을 익힌 분들도 많아요, 한복 짓는 사람부터 인쇄공까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소중한 경제의 원천들인데 안타깝더라고요. ...

<전태일 평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실 노동자는 지식노동만 하지만, 이 소공인들은 지식과 육체노동이 다 필요하니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네 손의 수고로 먹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내 손으로 아무리 노동을 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욕심이 아주 사나운 유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밭 주인의 비유처럼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

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 없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든 일을 시키고서 줘요. 노동은 사람들에게 자기 존중심을 갖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고 길거리에서 막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비열해지거나 비굴해기 쉽죠. 자존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노동의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봉제아카데미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43년 경력의 김도영 씨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저를 찾아왔던 봉제의 장인인데요, 지금은 공예를 배운 딸과 함께 자기 이름을 딴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요즘 “내 숨결과 미싱이 한 호흡으로 흘러갈 때, 더 없이 평온이 찾아온다.”고 하죠. ...

...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와 내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본인이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006년에 제1회 수다공방 패션쇼를 열었어요. 처음엔 다들 못한다고 난리더군요. 패션쇼 하면 신문방송에 다 나오고, 그러면 자식들이며 사돈들까지 내가 미싱사라는 걸 다 알게 된다고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이 했던 ‘핑크리본 패션쇼’ 기사를 들려주며,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숨어살던 등지를 깨고 나와야 한다고 설득했죠. 우리가 다 열심히 자기 기술로 일해서 아이들 잘 길렀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엄마들이냐고, 그게 왜 나쁘냐고 설득했죠. 결국 여기 기술자들이 직접 지은 옷을 본인도 입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초대할 유명인사들도 입혀서 패션쇼를 했어요. 그들이 워킹을 하면서 다들 눈물바다가 되고 세례 받은 것처럼 뒤집어졌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꽃다발을 받아본 사람도 감격하고, 다음에는 딸과 함께 무대에 서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여공이었고, 지금 만나는 분들이 다 오빠가 분신할 때 평화시장 공장 모퉁이에서 어린 나이에 그 일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오빠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기계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 저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